

2019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
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신약의 정경 안에서의
놀라우신 그리스도

메시지 14

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

성경: 계 1:1-2, 5, 9-12, 7:9-17, 19:10

- I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다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었다 — 계 1:5, 3:14.
- A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며,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다.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다.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이다 — 계 1:5.
- B. 요한계시록은 계시되신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교회, 즉 예수님의 증거를 계시한다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,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확대된 그리스도이다 — 요 1:18, 5:31-35, 8:14, 계 1:2, 5, 9, 19:10, 비교 창 1:26.
- II. 예수님의 증거는 일곱 금등잔대로서 본성에 있어서 (신성한) 금에 속하고, 어둠 속에서 비추며, 서로 일치한다 — 계 1:1-2, 9-12.
- A.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.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,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, 그 영은 교회들로 완전히 실재화되시고 표현되시며,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— 출 25:31-40, 숙 4:2-10, 계 1:10-12.
- B.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,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(행 9:4-5, 고전 12:12)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름(고전 12:13, 롬 10:12-13, 애 3:55-56)으로써 예수님의 영(행 16:7)으로 충만되어 예수님의 낙인(갈 6:17)이 찍힌 형제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(계 1:9-10).
- C.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. 우리의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쳐서 만든 등잔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— 출 25:31, 골 1:24.
1.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고 그 영의 내적인 일과 외적인 환경에 복종한다면 모든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 — 호 6:1-3, 빌 3:10, 엡 6:20, 창 41:42.
2. 사람이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온 일생을 낭비한 것이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의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더 알 수 있기를 바란다 — 고후 4:16-18, 12:7-9, 비교 사 7:14-15, 고후 5:14-15.
3.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 중에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가의 여부이다. 고난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— 고후 1:8-9, 비교 엡 1:17, 눅 1:78-79.
- D. 금등잔대가 비추는 것은 사람들이 금등잔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아는 것에 의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임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.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며,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시며,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— 계 1:12-18, 2:1, 17 하-18, 딤후 4:22, 히 7:25, 9:24, 민 6:22-27, 신 31:6.

- E. 금등잔대의 일곱 등불이 빛나는 것, 곧 주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은 일곱 눈과 빛나는 눈과 같은 발과,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금등잔대 사이에 거니시는 것은 주님의 더 많은 목양, 곧 그분의 구원하심과 복원하심과 부흥시킴과 신화시키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빛비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— 계 1:14 하-15 상, 16 하, 4:5, 5:6, 눅 1:78-79, 고후 4:6-7, 말 4:2, 잠 4:18, 시편 22 편 제목, 80:1, 3, 7, 15-19.
1. 빛은 하나님의 말씀,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영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,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계시하시는 말씀 안에 있다 — 계 2:7 상, 시 119:105, 130, 요 6:63, 엡 5:26-27, 아 8:13-14, 사 66:2, 5.
 2. 빛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.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에 속한 빛이 우리의 빛이며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소득이다 — 롬 9:15, 행 9:3-4, 사 50:10-11, 민 6:25-26.
 3.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, 우리의 마음은 단일하게 오직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갈망해야 한다 — 시 139:23-24, 빌 2:12-16, 대하 12:14, 16:12, 34:1-3, 시 27:8, 73:25, 눅 11:33-36.
 4.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열고,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,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. 주님을 향해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— 고후 3:16, 잠 20:27, 마 7:1-5, 눅 6:36-37, 41-42.
 5.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춰야 한다. 이것은 우리의 관점과 일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. 완전히 멈춰진 사람이 주님 앞에 올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해질 수 있다 — 눅 10:38-42, 요 11:21-28, 사 40:31, 마 5:3, 눅 18:15-17, 사 66:1-2.
 6.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이나 혹은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— 행 22:10, 아 5:4-6, 고후 10:3-5, 11:2-3, 민 16:1-7, 33-39, 17:1-8, 비교 출 33:11, 14.
 7.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— 사 2:5, 요일 1:7, 히 9:14, 10:22, 마 5:3, 8, 14, 시 119:105, 계 1:20, 시 36:8-9.

III.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, 곧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전체 몸이며 그들은 오늘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, 곧 하늘들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양의 목양을 누리도록 하늘들로 휴거된 이들이다 — 계 7:9-17, 엡 1:3, 갈 3:14, 창 12:2, 비교 계 21:3-4, 22:3-5, 사 49:10.

- A. 큰 무리는 어린양의 피로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사오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— 계 7:9 상, 5:9, 롬 11:25, 행 15:14, 19, 고전 6:19-20.
- B. “이 사람들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,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.” — 계 7:14.
 1. 요한계시록 7 장 14 절에서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 — 요 16:33.
 2. 어린양의 피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모든 비난에 대답하며 우리에게 마귀에 대한 승리를 준다(계 12:11).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위하여 열린 피의 샘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(슌 13:1, 요 19:34) 우리는 (보혈의) 샘에 잠기어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씻으며(영어 찬송 1006 장 1 절 참조) "새로워진 마음으로 흰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상과 죄"를 이긴다(영한동번 찬송 #1010, 3 절).
 3. 우리의 겉옷을 빼는 것은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.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인 생명의 성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— 요일 1:7, 계 22:14.
- C. 큰 무리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있다 — 계 7:9 하.

1.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겪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. 종려나무 가지는 또한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얻은 만족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— 계 7:14, 비교 요 12:13, 출 15:27.
 2. 하나님의 성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영원한 장막절로 누리게 될 것이며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— 계 7:15 상, 3:12, 레 23:40, 느 8:15, 시 92:12-13, 요 7:2, 37-38, 롬 1:9, 골 2:19.
 3. 오늘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는 영원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를 위한 예비이다.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날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.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우리로부터 나오시는 것이 봉사이다 — 마 25:19-23, 요 7:37-39.
- D.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,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— 계 7:16 상.
1.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소망을 가진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것이며 그들을 만족시키는 생명이신 그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— 요 6:35.
 2. 우리의 영 안에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며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— 요 4:13-14, 23-24.
- E. 내리 쪼이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— 계 7:16 하.
1. 보좌 위에 앉아계시는 어린양-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다 — 계 7:15 하, 고후 12:9.
 2.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에는 한 종류의 생명이 있다.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— 시 36:7-9, 엡 6:17, 시 91:1, 17:8, 57:1, 룻 2:12.
 3. 여호와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덮으시는 왕이시다. 그리스도는 다스림을 위한 왕이시며 바람을 피하며 폭풍우를 가리기 위한 피난처와 같고 마른 땅에 냇물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시다 — 사 32:1-2.
- F.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양은 우리를 목양하실 것이며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 — 계 7:17 상.
1.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. 그리스도의 목양 아래서 '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' — 시 23:1.
 2. 우리는 결코 자신을 개선시킬 수 없다. 우리는 항상 우리를 먹이기 위한 목자가 필요하다. 그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,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,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분의 체험으로 어린양들을 먹이신다 — 시 23:2-6, 계 22:1.
- G.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— 계 7:17 하.
1. 이 시대에서 눈물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겨지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 — 히 5:7, 행 20:19, 31, 시 56:8, 비교 말 3:16.
 2. 어린양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씻어진다 — 렘 9:1, 2:13, 비교 15:16, 애 3:21-25, 55-56.
 3.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슬픈 날과 슬픈 일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 세상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마시는 축복을 받았다 — 요 4:14 하.